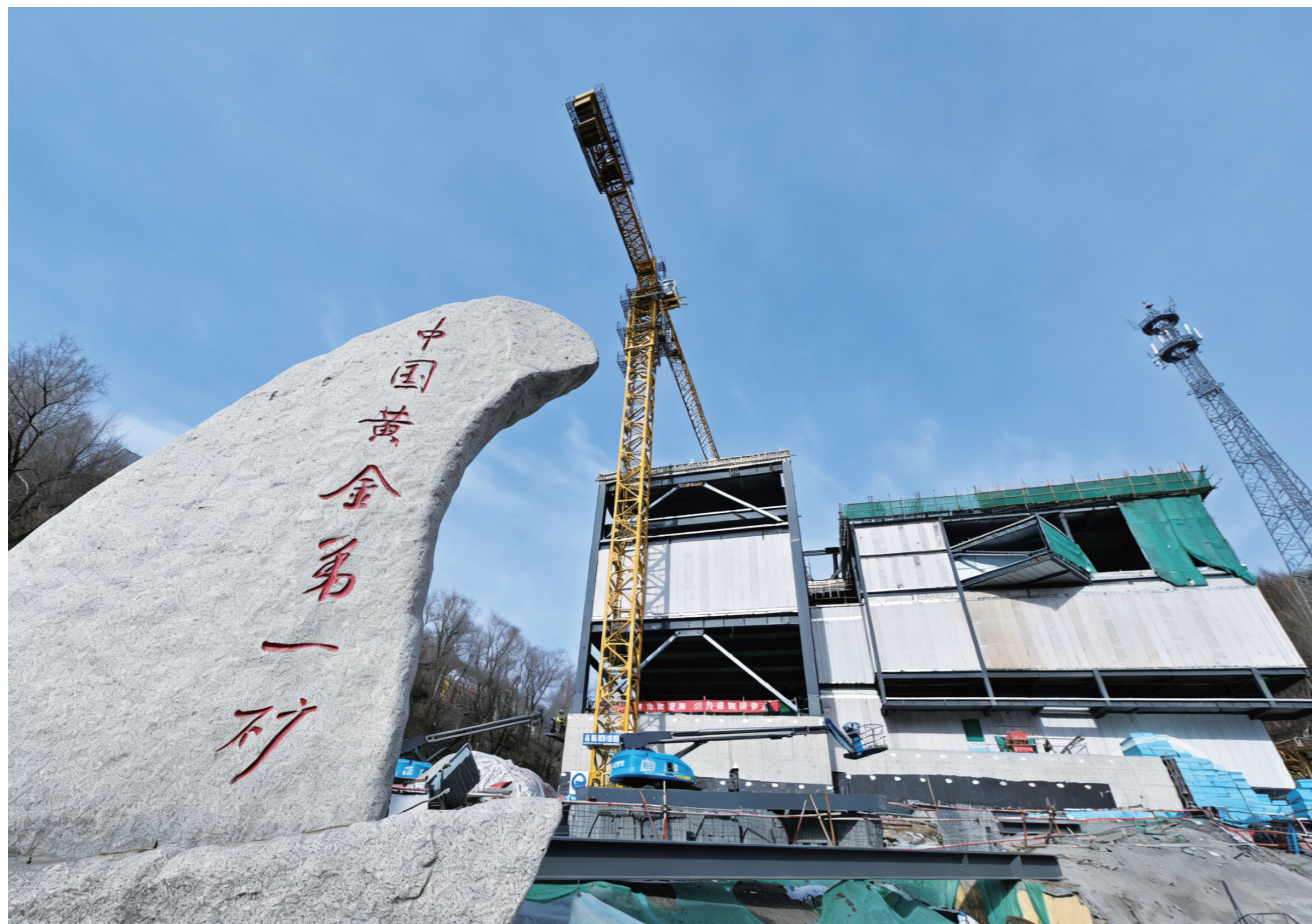




G334 문화관광대동로에 중국황금박물관이 선다



장백산 서쪽기슭, 화전시 자피거우진은 206년에 이르는 채굴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황금박물관의 준공이 림박함에 따라 이곳의 백년 금맥이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전망이다.

올여름 관람, 연학, 레저를 일체화한 황금 주제 종합문화관광단지인 G334 문화관광대동로에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로써 오래동안 봉인되었던 력사가 깊은 산속에서 벗어나 세상과 만나게 된다.

자피거우진 중국황금박물관 건설현장에 들어서면 대형 기중기가 긴 팔을 펼쳐 분주히 작업하고 용접 불꽃이 금빛마냥 사방으로 튀어오른다. 120여명의 건설자들이 현장에서 질서 있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물관은 '산하의 단련은 금석도 연다(山河淬炼, 金石为开)'를 핵심 리념으로 삼았다. 산세를 따라 층층이 들어선 건축물 하부는 광석이 대지에

뿌리내린 형상을, 상부는 금빛 공중도로가 선별공장과 연결된 구조를 띠는데 거친 돌이 황금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건축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다.

G334 문화관광대동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할 중국황금박물관은 백년의 광업 축적, 홍색국가지역(红色家園记忆), 현대 문화관광 체험을 하나로 융합했다. 전시관 내부는 '금의 흔'을 주제로 2,327점(세트)의 귀중한 유물과 660장의 력사 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지하에 위치한 력사전시구역이다. 폐광 강도를 정비해 조성한 이곳에는 길이 680미터의 소형 열차 관람 로션이 마련되었고 문화전시장랑과 영상음악관을 연결한다. 관람객은 소형 열차에 탑승해 채굴, 선별, 정련의 전 과정을 몰입형으로 체험하며 광석이 순도 99.99%의 황금으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피거우의 황금 전설은 이미 당나라, 송나라 시기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1820년, 인삼을 캐던 사람들이 위사하(苇沙河)에서 '벌처럼 흩어진 금'을 발견하면서 황금왕국의 막이 열렸다. 전성기에는 하루 500여냥, 연간 약 20만냥의 황금을 생산했으며 300년에 달하는 천연 금덩이는 당시 '날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번영을 증명한다.

200여년 동안 자피거우는 국가를 위해 8,000명 이상의 광업 인재를 배출했다. 현재 이곳은 국가공업유산 및 중앙기업공업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로우구채광구역(老牛沟古采区)과 일제시기 광석선별공장 유적 등은 황금 문화 전승의 중요한 담체로 남아있다.

이도구광산은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심부광산(深井矿)이다. 모니터 화면을 통해 종업원들이 지하에서 작업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광장 왕황은 화면을 가리키며 과거를 회상했다.

"1952년, 우리의 종업원 나보월은 습식천공기술(湿式凿岩技术)을 개발해 규폐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수많은 광부들의 건강을 지켜냈다." 이 기술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광산 안전 작업의 표준이 되었다.

왕황의 가족은 2대째 광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는 채굴 기술의 세 차례 중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초기의 단계식 붕락법(崩落法)은 준비 기간이 길고 자원 손실률이 높았다. 이후 도입된 충전채광법은 얇은 광맥을 정밀하게 채굴할 수 있었지만 인력 투입이 컸다. 현재 전면 도입된 거품 충전법은 세멘트와 발포제를 혼합해 충전재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인력배석충진을 대체하고 있다. "인력과 자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전성을 높여 자원 리용과 안전생산을 동시에 향상시켰다."고 왕황은 말했다.

중국황금박물관은 단순한 력사 전시 공간을 넘어 G334 문화관광대동로를 잇는 '황금맥락'이기도 하다.

화전시산업발전유한회사 방준숙은 "현재 함께 건설중인 보희대관광지는 '개두굴 발견을 축하하며 연극을 공연하던 민속'을 재현하고 황금 전시 판매, 특색호텔, 음악광장, 민속체험을 결합해 황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황금박물관 및 부대시설 건설은 전략적 안목과 발전 지혜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상은 문화관광의 핵심 위치에 자리해 3시간내 장춘과 장백산에 도달할 수 있고 1시간이면 장백산 관광 순환선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백산호, 동북항일련군밀영 등 관광지를 연결해 '황금문화 + 산업체험 + 생태관광 + 홍색교육'을 융합하는 종합 관광 로선을 구축한다. 관광객은 한방의 력적으로 력사 탐방, 생태 감상, 선별 추모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광업 중심지에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지하 금맥에서 지상 문화관광 성장 동력으로, 자피거우는 중국황금 박물관을 축으로 산업 유산을 되살리고 홍색력을 계승해나가고 있다.

/중국길림

'동북리그', 로고와 마스코트 공개



▲ '동북리그' 로고와 마스코트

29일, '동북리그(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로고와 마스코트가 심양에서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동북지역 최초의 성간 도시축구리그인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이하 '동북리그')'는 이로써 지역 특색이 뚜렷한 공식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 마스코트 '후거(虎哥)'는 동북범을 원형으로 하여 동북지역 4개 성, 자치구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 로고는 축구 모형을 핵심으로 설계되었는데 꼬리 부분을 불꽃 요소는 경기의 열정을 상징함과 동시에 동북지역 문화, 체육, 관광 산업 발전의 뜨거운 흐름을 의미한다. 또한 설계에는 흑룡강, 길림, 료닝, 내몽골의 병용 첫 글자인 'H J L N'이 교묘하게 반영되어 동북 4개 성, 자치구 협동 발전의 리념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다채로운 색채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풍부한 자원을 상징하며 융합발전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마스코트 '후거'는 동북범을 원형으로 하여 친근하면서도 용맹하고 소탈한 '동북사람' 이미지를 형성시켰다. 이는 동북지역의 다원적인 문화 기반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북리

그가 지향하는 분투진취, 개방포용을 잘 전달한다. 특히 '왕황' 전파력을 바탕으로 동북 문화를 대외에 알리는 생동감 있는 '형상홍보대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 활동은 지난 1월 21일에 시작된 이후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직위원회는 전국 22개 성, 시, 자치구는 물론 독일, 싱가포르 등 국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 활동은 지난 1월 21일에 시작된 이후 큰 호응을 얻었다. 조직위원회는 전국 22개 성, 시, 자치구는 물론 독일, 싱가포르 등 국가의 문화 요소를 융합한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했다.

/길림일보

길림화학섬유 친환경·지능화로 글로벌 시장 공략

3월 28일,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회사 년간 1만 5,000톤 규모 생물질 인조견사(生物質人造絲) 대상 1기가 순조롭게 생산에 들어갔다. 이 대상은 주로 고급 세섬도(細旦)인 인조견사 제품을 생산, 다수의 국제 유명 의류 브랜드에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해에 따르면 이 생산라인은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회사에서 인조견사 주력 산업을 심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섬유 소재를 선제적으로 배치한 대표적 대상이다. 기업은 60여년간 축적해온 탄탄한 기술력과 산업 우세를 바탕으로 전자동 권사(絡絲), 분류, 포장 지능형 조작통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2기달화 수준이 70%에 달해 업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년간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

회사는 '지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발전 방향을 견지하고 전통산업의 전환 및 승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업은 국제 방직업계의 FSC, EU-BAT 등 17개 국제적 권위 친환경 인증을 잇달아 획득했다. 이번 대상은 친환경 순환 가능한 팔프(漿粕)를 원료로 사용해 다수의 핵심 기술을 돌파하고 친환경, 지속가능 인조견사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많은 국제 브랜드의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시장 수요가 왕성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로해에 따르면 이 대상이 전면 가동될 경우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회사의 인조견사 총생산능력은 12만 5,000톤에 달해 고객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 이로써 인조견사산업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길림일보

사명·실천

전국정협 위원 지일대

량회의 좋은 소식을 변호사 사무소에 전달

3월 13일 오후, 상해공승영대(장춘) 변호사사무소의 회의실 분위기는 유난히 뜨거웠다. 북경에서의 직책 수행 일정을 마치고 금방 장춘에 돌아온 길림 주재 전국정협 위원인 지일대는 전국 량회 자료를 손에 쥐고 서둘러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즉시 강단에 오르지 않고 먼저 앞줄에 앉은 변호사들과 정경계 인사를 나누며 진솔하게 말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오늘은 전국 량회에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알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겠다."

이 소박한 한마디는 익숙했던 회의실 분위기를 진근하게 바꾸어놓았다. 좌중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터졌다.

"올해 전국 량회에 참가하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긴박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직설적인 지일대의 말에는 확고함이 배어있었다. "대회에서는 정부사업보고와 '제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이 순조롭게 채택되었고 생태환경법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등 일련의 중요한 법률들이 속속 채택되었다. 이는 향후 5년 발전의 길을 확정하고 준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

는 말하면서 손에 든 문서를 펼쳤다. 페이지에 뽀뽀하게 적힌 주석(标注)들은 그의 직책 수행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격했는지를 보여주었다.

변호사 업계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지일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법부 당조가 변호사 업계에 제시한 '5가지 희망'은 벽에 걸려놓은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는 행동 지침이다." 그는 확고한 시선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의 전문능력을 백성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평정의로 전환시키고 이걸서부터 길림의 전면 진흥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튼튼한 법치 기초가 되게 해야 한다."

강연은 깊은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진심이 담겨있어 현장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변호사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수 청년 변호사 집단은 커다란 고무줄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년 법률 종사자로서 나는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청춘의 힘으로 법치의 초석을 실천하고 공평정의를 수호하겠다." 베테랑 변호사 요점첨은 자신의

사건 처리 경험과 결부하여 소감을 공유했다. "우리는 전국 량회 정신을 모든 사건 처리와 모든 법률 봉사에 융합시켜 균중들이 공평정의가 바로 곁에 있음을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

강연이 끝난 후 지일대가 강단에서 내려오자마자 몇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전국 량회 정신을 제때에 우리에게 전달하였기에 우리 마음속에 명확한 방향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지일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방향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긴다. 다음으로 나는 기관, 학교, 사회구역에 찾아가 량회 정신을 더 많은 균중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젊은이들도 바통을 이어받아 용감히 사명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분투해야 한다."

강연이 끝났지만 모두들 아쉬워했다. 어떤 사람들은 필기를 넘겨보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소감을 교류했다. 회의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한데 모인 분위기가서 비롯된 것뿐 아니라 량회 정신이 전달하는 힘과 희망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다.

/길림일보

장춘공항

항로 신설 및 증편

'장춘룡가국제공항' 소식에 따르면 3월 29일부터 2026년 여름 항공 시즌 항공편 계획이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매우 계획된 항공편수는 2,750편으로 하루 평균 392편에 달한다. 새로운 항공 시즌은 10월 24일에 종료, 총 210일이다.

장춘룡가국제공항 2026년 여름 항공 시즌에는 총 32개의 항공사가 운영에 참여하는데 북주항공, 강서항공, 서려항공 등 항공사가 추가되어 항로망 배치가 더욱 보완된다. 126갈래의 항로와 79개의 취항 지점을 실행할 계획이다.

국내선:

려강, 해주, 박주, 일조, 가흥 등 새로운 항로가 새로 추가되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성도, 중경 등 도시는 매일 계획 항공편이 70편 이상이고 항주, 남경, 정주의 하루 출항 항공편수는 10편을 돌파했으며 청도의 하루 항공편수는 13편으로 증가되었다.

국제선:

한국 서울은 매주 23편으로 증편되었으며 방콕, 푸알라룸푸르 등 동남아시아 항공 로선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넷-조문판

영상시



작사: 리명 량송: 리명 제작: 리명

